

‘K-클린뷰티’ 내세운 마녀공장, 일본서 훨훨

日 백화점서 브랜드 단독 팝업스토어 열엔피코스메틱, 코스닥상장 목표 2020년 매출 전년비 42.4% 증가

자연주의 기능성 화장품 ‘마녀공장’이 일본에서 한국식 ‘클린 뷰티’, ‘비건 뷰티’ 등의 콘셉트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본 대형 온라인몰들에서 상위권에 진입하던 이달 다이마루백화점 도쿄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오픈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본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마녀공장은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쿄역 근방에 위치한 다이마루백화점 2층에서 브랜드 단독으로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팝업스토어를 통해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이고 선구매 예약을 받으며, 현지 구매자를 위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녀공장은 이번 팝업 스토어로 일본 오프라인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



지난 11월 마녀공장 제품이 일본 큐텐재팬 홈페이지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마녀공장

이다. 마녀공장은 일본의 최대 버라이어티 스토어 ‘로프트’의 메인 채널인 도쿄 시부야, 긴자, 오모테산도점을 비롯해 17개 매장에 순차적으로 입점한 바 있다. 또 스텝인 형태로 40개 매장과 일본 최대 멀티 브랜드샵인 옛코스메의 14개 매장에 입점해 있다.

오프라인 본격 공략 전에 마녀공장은 일본 최대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연이어 랭킹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은

큐텐재팬에서 출시와 동시에 1위를 기록하며 조기 품절을 달성했다. 아마존 일본에서는 지난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26일) 전년 대비 1만11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 제품 ‘비피다 트레저 기획세트’와 ‘퓨어 트레저 기획세트’도 얼마전 라쿠텐에서 판매를 시작해 실시간 랭킹 1, 2위를 기록했다.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마녀공장은 실적 성장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로 화장품 회사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마녀공장은 한국산 화장품의 착한 성분과 비건 뷰티를 내세운 클렌징폼, 클렌징 오일 등으로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 2020년 매출은 393억원으로 전년(276억원) 대비 42.4% 가량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65억원으로 240% 이상 급증했다. 2021년에도 전년도의 매출 성과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마녀공장 지분의 70%를 소유한 엘엔피코스메틱은 이 같은 브랜드의 성장을 발판 삼아 올해 코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마녀공장이 대외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모회사인 엘엔피코스메틱의 IPO 재개 가능성도 높아졌다.

업계에 따르면, 유명 마스크팩 브랜드 메디힐을 운영하는 엘엔피코스메틱은 중국 사업 부진으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자회사를 키워 일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상장하는 전략으로 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일동제약

‘마이니 면역 홍삼’ 신제품

일동제약이 자사의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마이니(MyNi)’의 신제품, 아이들 건강을 위한 ‘마이니 면역 홍삼 시리즈’를 선보인다.

‘마이니 면역 홍삼 시리즈’는 ▲마이니 면역 홍삼젤리 ▲마이니 면역쭈쭈 홍삼젤리 ▲마이니 면역엔 브레인 홍삼진액 등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제품들에는 국내산 6년근 홍삼에서 추출한 유효성분 ‘진세노사이드’가 들어 있어 ▲면역력 증진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항산화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이니 면역 홍삼젤리’와 ‘마이니 면역쭈쭈 홍삼젤리’는 각각 오렌지 농축액, 망고 농축액이 함유된 젤리 형태의 제품으로, 아이들이 쓰지 않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D, 정상적인 면역 기능 및 세포 분열에 필요한 아연 등 아이들의 성장을 고려한 성분들이 함께 들어 있다.

/이세경 기자

SK바사 제조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허가

첫 ‘합성항원 방식’ 기대

안전성·유효성 입증 받아 체내서 항체 생성 유도 방식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제조, 생산하는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첫 도입된다. 독감과 B형 간염 백신 등으로 장기간 활용된 합성항원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코로나19 백신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 특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백신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이하 뉴백소비드)’에 대해 12일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합성항원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이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뉴백소비드

가 최초다. 뉴백소비드는 미국 노바백스가 개발하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원액부터 완제까지 제조하는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이다.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하여 체내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번 품목허가에 따라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신속하게 뉴백소비드를 국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질병관리청과 총 4000만 회분의 뉴백소비드를 국내에 공급하는 선구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리비움,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위탁개발생산

메디톡스 자회사, 계약 체결

메디톡스 자회사 리비움이 호주 루이나바이오, 영국 키이파마와 자체 개발중인 염증성 장질환 치료 후보물질(이하 LIV001)의 원료, 완제 위탁개발생산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리비움은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로 개발중인 ‘LIV001’의 상업화를 본격화하게 됐다.

리비움은 지난해 메디톡스로부터 미생물 치료제(LBP) 후보물질 및 제반 기술을 이전 받아 설립된 차세대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다. 리비움은 차세대 듀얼 LBP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플랫폼 기술 ‘N-LBP’와 유전자 에디팅을 이용해 치료 효능을 극대화시킨 ‘E-LBP’를 바탕으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확대하

고 있다.

리비움의 선도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LIV001은 ‘E-LBP’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염증성 장질환 치료 후보물질이다. 면역기능을 조절해 치료 효능을 극대화시켰으며 치료제로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리비움은 최근 동물모델에서의 효력시험을 통해 LIV001의 급성 및 만성 장염의 치료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리비움 송지운 대표는 “이번 위탁개발생산 계약을 기점으로 세포은행 구축, 생산공정 개발, 임상 시료 생산 등을 본격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와 동시에 연내 비임상 독성 시험을 완료하고 2023년 글로벌 임상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 중인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LIV002’도 2023년 글로벌 임상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세경 기자



스타벅스가 청소년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149명을 채용했다. /스타벅스 코리아

특성화고 취업 지원 스타벅스, 149명 채용

스타벅스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며 적극적인 인재 채용에 나선다. 스타벅스코리아는 교육기부 국제 NGO 단체인 JA(Junior Achievement)와 함께 지난해 진행한 2021년 청소년 진로 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 149명을 채용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스타벅스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을 예상한 인원의 50%의 약 3배를 웃도는 인원으로써,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꿈을 펼치고 다양한 경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채용 인원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 2020년 특성화고 학생 채용인원에 비해서도 4배가 넘는 수치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JA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업계 최초로 교육 연수 과정을 이수한 스타벅스 임직원들이 전국의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는 청소년 진로 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7년째 전개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발표 기술, 모의 면접, 관계 형성 기술, 갈등 해결 기술 등의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해 진행했으며, 12월에 진행된 온라인 채용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149명의 학생이 합격했다. 이들은 고교 졸업 후 올해 3월, 만 18세 이상이 된 학생부터 차례로 스타벅스에 입사해 바리스타로 근무하게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고운세상코스메틱 피부건강 나눔챌린지 성료

화상 환우 치료 지원

닥터지(Dr.G)를 운영하는 고운세상 코스메틱이 고객과 함께 화상 환우 치료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피부건강 나눔 챌린지’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 ‘피부건강 나눔 챌린지’는 닥터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닥터지 피부유형 테스트’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지난해 챌린지를 통해 8090명의 고객이 자신의 피부건강 관리와 동시에 화상 환우를 지원하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었다.

고운세상코스메틱이 한림화상재단



(왼쪽부터)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의 김기현 사무국장, 이주호 고운세상코스메틱 대표. /고운세상코스메틱

에 전달한 금액은 총 5000만원으로 ‘피부건강 나눔 챌린지’를 통해 모금된 누적 기부금액 약 1000만원에 추가 기부금을 더해 조성됐다.

/원은미 기자

희귀질환 산모, 건강한 아이 ‘출산’

이대서울병원서 자연분만 성공

인구 100만 명 중 1~2명이 앓는 희귀질환인 선천성 무피브리노겐혈증을 앓고 있는 산모가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에서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달 28일 새벽 2시 31분에 선천성 무피브리노겐혈증을 앓고 있는 정 모씨가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천성 무피브리노겐혈증(선천성 무섬유소원혈증)은 상염색체 열성 소인으로 유전되는 질환으로 혈액 응고인자인 섬유소원이 선천적으로 부족하거나 없는 혈액질환이다. 발생률은 인구 100

만명 중 1~2명으로 매우 드문 질환으로 현재까지 250여 정도가 보고됐다.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75%는 유아기 때부터 출혈이 동반되는데 출혈의 정도와 빈도는 경한 정도에서 중증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출혈은 구토 시, 분만 시 과다출혈 및 피부조직의 혈종 등에서 발생한다.

산모가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에서 분만을 결정한 것은 담당의사인 이대서울병원 박미혜 산부인과 교수(모아센터장)와의 신뢰가 한몫했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입원 5시간만인 새벽 2시 31분 출혈 없이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다.

/이세경 기자